

끝이 아닌 인연을 따라 (상)

강호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저는 요즘 그동안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 짓고 제 자신의 사업계획을 구상하며 틈틈이 봉은사 청년회 도반들과 연꽃등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겨 봉은사 도량을 한 바퀴 돌고 도랑 주변을 휘 돌아봅니다.

봉은사... 참으로 아름다운 도량입니다. 도시 빌딩 숲 안, 푸른 산자락 터에 자리 잡은 도랑 봉은사. 이 안에서 불법을 배우고 수행하여 도반들과 좋은 인연을 맺는 제 자신을 생각하니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려군요.

저는 지난 과거, 묘한 불법과의 인연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그 때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봉은사에서 활동하기 전, 저는 순간순간 많은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저의 아련한 과거이며 추억이고 만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지난 과거의 아름다웠던 젊은 날을 글로 남겨보고 싶어 펜을 들었습니다.

7년 전, 저는 익명의 사회 봉사자였습니다. '인간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안고 밝은 세상을 꿈꾸며 마음으로 실천하기를 좋아했던 익명의 봉사자.

그런데 사실 그 때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닌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 당시 저의 소망은 이웃로부터 소외받음, 가난과 배고픔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성당에서 혼자 물레 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예수님의 진리를 알게 해달라는 눈물의 서약과 더불어...

그 뒤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

느는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신앙 안에서 제가 찾았던 진리를 이해할 수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앙 안에 있다고 믿었을 당시에는 그것을 의심치 않았습다.

그러나 일단 그 마음이 사라지자 제가 여태까지 꿈꿔오고 믿어왔던 삶이 하나의 꿈, 환상이었던가 싶었습니다. 정말 제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꿈이구나... 그냥 난 보

현각 스님과 화계사 국제선원의 여러 도반 들입니다.

저에게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현각 스님 또한 미국에서 출가하시기 전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런 점이 오히려 낯선 불교, 다른 스님들보다 심적으로 현각 스님을 가까이 여기게 한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가톨릭에서 구도의 길로 들어선 분이기 때문 입니다.

그렇게 화계사에서 마음의 거처를 정하고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마음속에 괴로움이 하나 떠올

신앙에 대해 고민할 무렵 현각 스님 만나 관세음보살 정근 후 마음의 고통 사라져 “깨달음 위해 정진하라” 가슴 깊이 새겨

통 평범한 사람으로 살리라.'

저는 어쩌면 그 당시 마음에 자유가 없는 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5년 동안 활동하던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려다 보니, 제 주변에는 함께있던 친구들도 사라지고 갈만한 곳도 없어졌습니다. 오직 저뿐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도움을 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교경전 <숫타니파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소의 뽕처럼 혼자서 가라'는 구절이 제 마음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앙적 딜레마에 빠져 힘들어 할 때 도움을 주신분이 계십니다. 서울 화계사

였습니다.

'내가 왜 절에 다니는가?' '전에 믿었고 사랑했던 신을 배반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갑작스레 찾아와 마음에 고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스님의 관세음보살 정근 소리가 내 안에 깊숙이 들리더니 왠지 모를 편안함이 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많이 울고 싶었습니다. 허연없이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니 마음의 고통이 눈물에 씻겨서 편안해졌습니다.



그림 · 문병성

눈물의 관세음보살 정근 후 국제선원에서 현각 스님 법문을 듣고 난 뒤 스님과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현각 스님께서는 그 때 저가 가지고 있던 아상을 깨주셨습니다.

"신(God)! 없는 걸 찾으려 하지 마세요."

저는 그 때 승산 큰 스님의 <선의 나침반>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스님 이야기를 이해 할 수 있었고 저의 생각이 진리에서 벗어난 망상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의 신을 죽이지 못하면 참된 신을 만날 수 없으며 신은 이름도 모양도 없으며 말도 문자도 없다'라는 선(禪)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둘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초, 계룡산 무상사에서 무심 스님께 '광공(光空)'이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계룡산 무상사는 산수가 아름답고 수행하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명을 받고 5일 정도 수행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점심 공양 후 저는 사무실에 앉아 홀로 현각 스님의 <만행>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

습니다. 그리고 봄에 다시 화계사를 찾아 현각 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스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고 그 동안의 범명 받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스님께서는 마치 자기 일처럼 좋아하시더군요.

제가 "스님을 스승님으로서 모시게 되어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니 스님께서는 오히려 "저한테는 인생의 커다란 영광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저는 속으로 반짝 놀랐습니다. 이름 높으신 스님께서 저게 이렇게까지 말씀해주시길 것이라고는 상상

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이 진정한 하심이구나.'

말씀 도중 현각 스님은 저에게 출가를 권하셨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향해 용맹정진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출가는 마음속의 집착함을 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에 스님은 크게 웃으시더니 "훌륭한 생각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제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구독안내 : 구독료 월 5천원 / 납부방법 : 1. 전화요금합산 2. 자동이체 3. 지로
신청문의 : 고객센터 02)2004-8211~2 / Fax 02)737-0697

지 사 명	활동 지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 종 열	051)632-0064 / 010-7211-5066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호남지사	광주 · 전남 일원	이 준 업	062)375-9986 / 010-9692-3536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해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김해 / 마산 / 고성 / 거제 일원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대전충북지사	대전 / 충북 일원	해철스님	042)257-0161 / 011-9422-8453
울산지사	울산 / 경주	서 병 수	052)272-0909 / 011-862-5282

탈종공고

- 사찰명 : 보리암
- 주 지 : 지명(이금복)
- 주 소 :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 327-16

위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총무원장 법하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새해를 맞이 하시어 부처님의 가피로, 불자님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백년가약 사랑스런 자녀의 혼인을 현대에서... 2006년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뤄주신 은혜, 보은에 감사드립니다.

원장 이영숙

사무실 : 02)2677-5442
소연구원 : 032)345-5411
휴대폰 : 011)288-2944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이연공고 (離緣公告)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전남정(全南亭) ● 사찰명 : 수진사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879 권윤기(權潤潭) ● 사찰명 : 관음사 이민순(李妙圓) ● 사찰명 : 관음사

위 2인은 총화종단 소속 사찰로서 종단 발전에 헌신해 왔으나 불기 2550년(서기2006년)양력 1월 26일자로 세속인연과 불교법연이 소멸되었기에 절연 되었음을 이연공고 합니다

불기 2550년(2006년) 1월 26일

관 음 사 창건주 이민순(묘원) 주 지 권윤기(淸潭)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법하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

여러분의 뜻과 정성을 담아 큰 그릇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 장 효천스님 고 문 승욱스님
부회장 삼해스님, 혜만스님
감 사 정혜스님, 불산스님
간 사 진홍스님

원 장 승욱스님
정범스님
원 장 남곡스님
원 장 원복스님
관 장 혜만스님
이사장 정혜스님
이사장 불산스님
관 장 진홍스님
이사장 원행스님
원 장 지태스님
원 장 명종스님
원 장 명종스님
원 장 본웅스님
원 장 최 분 이
원 장 유 지 희
원 장 하 영 숙
이사장 김 기 원
원 장 효천스님
원 장 법수스님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1152-1번지 협의회 사무국
전화 055)863-1701 / 팩스 055)863-0758